FESTIVAL DE CANNES
OFFICIAL SELECTION
sundance
기억에 관한 가장 아름답고 독창적인 이야기
2022 June, Vol.149
〔파친코〕 코고나다 감독 작품
애 프 터 양
AFTER YANG
데이빗 투 더 데이빗 특별전 6.9 목~7.6 수
<로스트 하이웨이>, <트윈 픽스>, <이레이저 헤드>
<데이빗 린치: 아트 라이프>
<고스트 스토리>, <미스터 스마일>, <그린 나이트>
후원회원 시사회 <윤시내가 사라졌다> 6.8 수 20시
무료대관공모전시 이은빈 개인전 가슴 6.1 수~6.19 일
JEONJU
cine complex
jeonjucinecomplex.kr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 3길 22
전주영화제작소 063)282-1400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063)231-3377

1F

전주영화제작소

자료열람실

6월 개봉영화 × 자료열람실

매월 개봉영화와 연계된 자료열람실 작품추천 코너

사운드 에디터에서 감독으로, 로런 해더웨이

위플래쉬
데미언 셔젤

맘마미아!2
올 파커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잭 스나이더

여러 엄마의 모습, 김정영 배우

우아한 거짓말
이한

걷기왕
백승화

분장
남연우

자료열람실 이용안내

이용시간 오후 1시 ~ 7시까지

이용요금 무료

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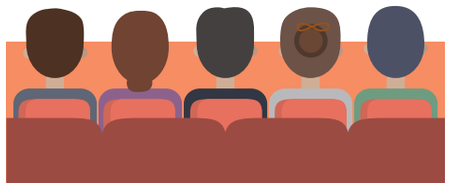
① 열람하고 싶은 자료를 비치된 목록에서 선택한다.
② 열람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③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지정된 좌석에서 열람한다.
④ 열람 후 자료를 담당자에게 반납한다.

보유자료

독립·예술영화 DVD & Blu-ray, 한국고전영화 VOD, 영화관련 도서, 정기간행물,
후반제작시설관련 기술서적
※ 자료열람실 보유 자료들은 실내 열람만 가능하며, 외부 반출이나 대여는 절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열람실 이용시 개인물품은 보관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수칙으로 음료나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제한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전화통화, 큰소리 대화)나 직원 안내에 불응시 퇴실조치 될 수 있습니다.



관객동아리 씨네몽의 자료열람실 추천작

블라인드
(Blind, 2011)

감독 : 안상훈
출연 : 김하늘, 유승호 | 111분 | 스릴러 | 청소년 관람불가

글_관객동아리 씨네몽
유진선

각본가이며 영화 감독인 안상훈은 2006년 공포 스릴러인 <아랑>으로 스크린에 데뷔하였으며 그 후로 2011년에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목격된 사건을 주제로 하여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작품입니다.

경찰대학생이었던 수아가 불의의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되어 겪어야 했던 사건을 자기가 느꼈던 상황을 통하여 수사에 협조하던 중 사건의 순간을 목격한 기섭의 진술의 엇갈림으로 인하여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범인이 목격자 제거를 위한 행동들 속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이 뛰어난 작품입니다.

2011년 당시 개봉시에는 주인공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에서의 스릴감에 의한 영화의 재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었으나 . 10여년이 지난 후 다시 이 영화를 보면서 시각장애인이 느끼며 보는 세상과 비장애인이 보는 세상은 하나지만 느낌과 보임의 표현은 서로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범인이 사용한 차량이 '택시다, 아니다', '외제차량이다'하는 것을 보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들에 대하여 '당신이 본 것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감독은 말을 한다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선척적 장애을 갖고 태어난 사람보다 후천적으로 누구나가 장애를 갖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며, 우리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서로가 도우면서 살아가야 할 공동체 일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형사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면 사건의 진실을 찾을 수 있었을까?
기섭(유승호)의 측은지심 아니 관심이 없었다면 영화의 방향은 어떻게 되었을까?
영화 속에 이야기가 삶 속에서의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수아에 입장에서 기섭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블라인드를 감상 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을린 사랑
(Incendies, 2010)

감독 : 드니 빌뇌브
출연 : 루브나 아지발, 멜리사 디소르미스-폴린, 맥심 고데테 | 130분 | 드라마 | 청소년 관람불가

글_관객동아리 씨네몽
이지운

영화 <그을린 사랑>은 머리를 깎이고 있는 소년을 등장시키며 시작된다. 소년의 눈빛에서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의로 머리카락을 잘리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했다. 자의성에 대한 박탈, 전쟁과 이념으로 인한 수많은 희생자들의 원망의 눈빛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후 주된 줄거리는 어머니 '나왈'의 장례를 치르게 된 쌍둥이 남매 '잔느'와 '시몽'의 이야기로 서술된다. 어머니 나왈의 유언은 남매를 자신의 뿌리인 중동지역으로 이끌고, 남매는 존재조차 몰랐던 아버지와 자신들의 또 다른 형제를 찾기 시작한다. 그들(아버지와 형제)을 찾아 편지를 전달하기 전에는 절대로 자신의 장례를 치루지 말라는 당부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장례를 거부하는 망자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영화는 전쟁과 이념으로 인한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의 상처와 좌절감 이외에도 약속이란 숭고성에도 집중한다. 나왈의 유언을 통한 약속을 성스러운 것이라고 반복하여 말하기도 하고, 나왈의 삶 자체가 어찌보면 약속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의 세월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의미 없이 약속을 남발하고, 깨기도 하는 현대의 많은 이들에게 영화는 숭고성으로 약속을 말하고 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길 위에 나왈이 탔던, 그녀의 딸 잔느가 탔던 버스가 달린다. 그렇게 우리는 아직까지도 전쟁과 이념으로 인한 상처 위를 세대를 거쳐 가며 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극과 같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을까.

4F JEONJU digital indep. cinema

<관람료 안내>
일반 7,000원
후원회원 / 단체(10인 이상) 6,000원
경로/어린이/청소년/국가유공자/장애인 5,000원

개봉 예정작 동시대에 개봉하는 독립· 예술영화 상영

05
26
개봉

그대가 조국 (The Red Herring, 2022)

감독 : 이승준 | 124분 | 다큐멘터리 | 12세 관람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검찰공화국인가
검찰의 칼날이 그대에게 향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사냥이 시작됐다.
검찰이 던진 좌표를 따라 언론은 몰려들고 소문은 꼬리를 문다.
분노한 대중 앞에 검찰은 칼을 휘두른다.

저기 쫓기는 자는 누구인가.
그대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06
02
개봉

애프터 양 (AFTER YANG, 2021)

감독 : 코고나다 | 출연 : 콜린 파렐, 조디 터너 스미스, 저스틴 H. 민 | 96분 | 드라마, SF | 전체 관람가

함께 살던 안드로이드 인간 '양'이 어느 날 작동을 멈추자
제이크 가족은 그를 수리할 방법을 찾는다.
그러던 중, '양'에게서 특별한 메모리 뱅크를 발견하고
그의 기억을 탐험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남기고 싶었어, 양?

06
02
개봉

더 노비스 (THE NOVICE , 2021)

감독 : 로런 해더웨이 | 출연 : 이사벨 퍼만, 에이미 포사이스 | 97분 | 스릴러 | 15세 관람가

대학 신입생 '알렉스'는
교내 조정부에 가입한 후
동급생 '제이미'에게 경쟁심을 느낀다

늘 최고를 갈망하는 '알렉스'는
팀 1군에 들기 위해 훈련을 거듭하고,
스스로를 극한으로 내몰기 시작하는데…

네 미친 짓으로 최고를 증명해 봐!

06
09
개봉

윤시내가 사라졌다 (Missing Yoon, 2021)

감독 : 김진화 | 출연 : 이주영, 오민애, 노재원, 김재화 | 107분 | 드라마 | 12세 관람가

영원한 디바 '윤시내'가 고별 콘서트를 앞두고 사라졌다?!
전설적인 가수의 실종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20년 간 이미테이션 가수 '연시내'로 활동해온 순이(오민애)는
'윤시내'와 함께할 뻔한 꿈의 무대도, 일자리도 잃어 좌절에 빠진다.
한편, 사람들의 관심이 고픈 유튜버 '짱하'(이주영)는
라이브 방송 중 우연히 찍힌 엄마 '연시내' 영상의 조회수가 떡상하자
대박 콘텐츠를 꿈꾸며 '윤시내'를 찾는 여정에 따라 나서는데…
동료 가수 '운시내'(노재원)와 함께 가시내, 윤신애, 윤사내까지 모두 만나며
사라진 '윤시내'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한 동상이몽 두 모녀는 과연 '진짜'를 만날 수 있을까?

06
09
개봉

올리 마키의 가장 행복한 날 (Hymyileva mies, 2016)

감독 : 유호 쿠오스마넨 | 출연 : 에로 밀로노프, 자코 라티, 우나 아이롤라 | 93분 | 멜로/로맨스, 드라마 | 12세 관람가

평범한 제빵사에서 권투 영웅으로 떠오른 '올리'
전 국민이 고대하는 세계 챔피언십을 앞두고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코치님,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말해봐"
"저 사랑에 빠졌어요"
"왜 하필… 지금!!"

06
16
개봉

베르네 부인의 장미정원 (La Fine Fleur, 2020)

감독 : 피에르 피노드 | 출연 : 카트린 프로, 팟사 부야메드, 올리비아 코트, 마리 페티어트 | 95분 | 드라마 | 12세 관람가

인생의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곳, 베르네 부인의 장미정원입니다
프랑스 최고의 원예사 에브 베르네는
대를 이어 장미정원을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장미를 공산품 취급하는 사업가 라마르젤에 밀려
명성과 고객은 물론, 자신의 정원까지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

신입 원예사를 뽑아 정원을 지키려 하지만
경력도 지식도 없는 초짜 직원들은 문제를 일으키기만 하는데...

과연 에브와 원예 초보 신입들은 정원을 구해낼 수 있을까?

6
월
예정

경아의 딸 (Gyeong-ah's Daughter, 2022)

감독 : 김정은 | 출연 : 김정영, 하윤경, 김우겸, 박혜진 | 119분 | 드라마 | 15세 관람가

홀로 살아가는 경아에게 힘이 되어주는 유일한 존재인
딸 연수는 독립한 뒤로 얼굴조차 보기 어렵다.

그러던 어느 날, 헤어진 남자친구가 유출한 동영상 하나에 연수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져버리고
이 사건은 잔잔했던 모녀의 삶에 걷잡을 수 없는 파동을 일으키는데…

"엄마 탓 아니야. 내 탓도 아니고"

후원회원 시사회

무료상영

매월 관객설문조사 상위권 작품 가운데
1편을 선정하여 개봉 하루 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후원회원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시사회

상영시작 1시간 전부터
후원회원에 한하여 선착순(1인 1매)으로
티켓 증정(단, 티켓 소진 시 입장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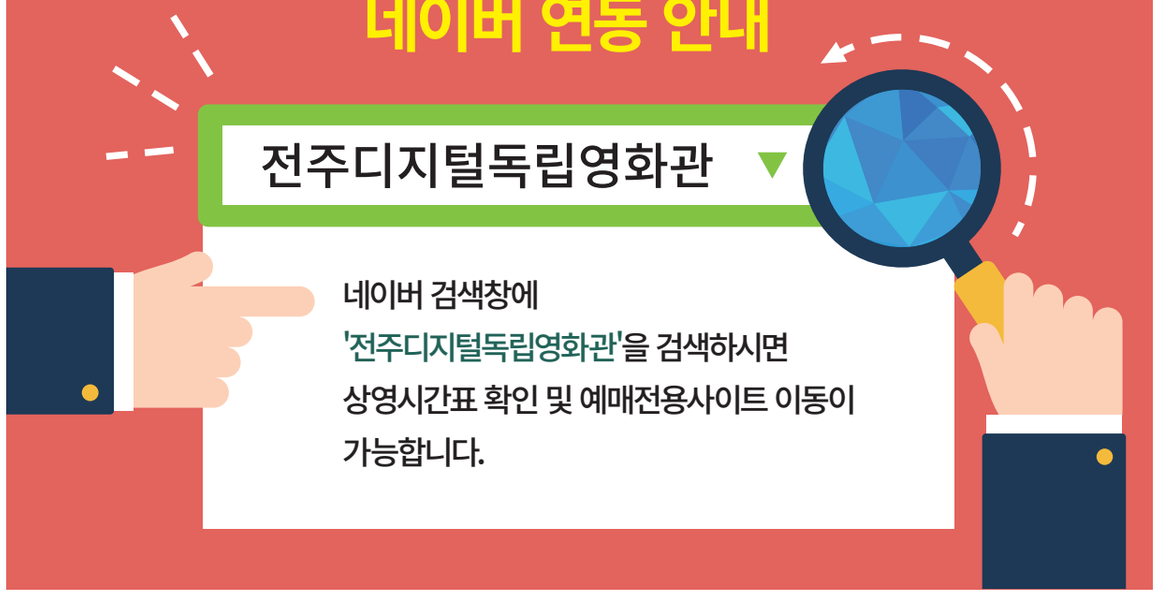
윤시내가 사라졌다
(Missing Yoon, 2021)
감독 : 김진화
I 출연 : 이주영, 오민애, 노재원,
김재화 I 107분 I 드라마 I 12세 관람가

영원한 디바 '윤시내'가 고별 콘서트를 앞두고 사라졌다?!
전설적인 가수의 실종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20년 간 이미테이션 가수
'연시내'로 활동해온 순이(오민애)는 '윤시내'와 함께할 뻔한 꿈의 무대도,
일자리도 잃어 좌절에 빠진다. 한편, 사람들의 관심이 고픈 유튜버 '짱하'(이주영)는
라이브 방송 중 우연히 찍힌 엄마 '연시내' 영상의 조회수가 떡상하자
대박 콘텐츠를 꿈꾸며 '윤시내'를 찾는 여정에 따라 나서는데…
동료 가수 '윤시내'(노재원)와 함께 가시내, 윤신애, 윤사내까지 모두 만나며
사라진 '윤시내'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한 동상이몽 두 모녀는 과연
'진짜'를 만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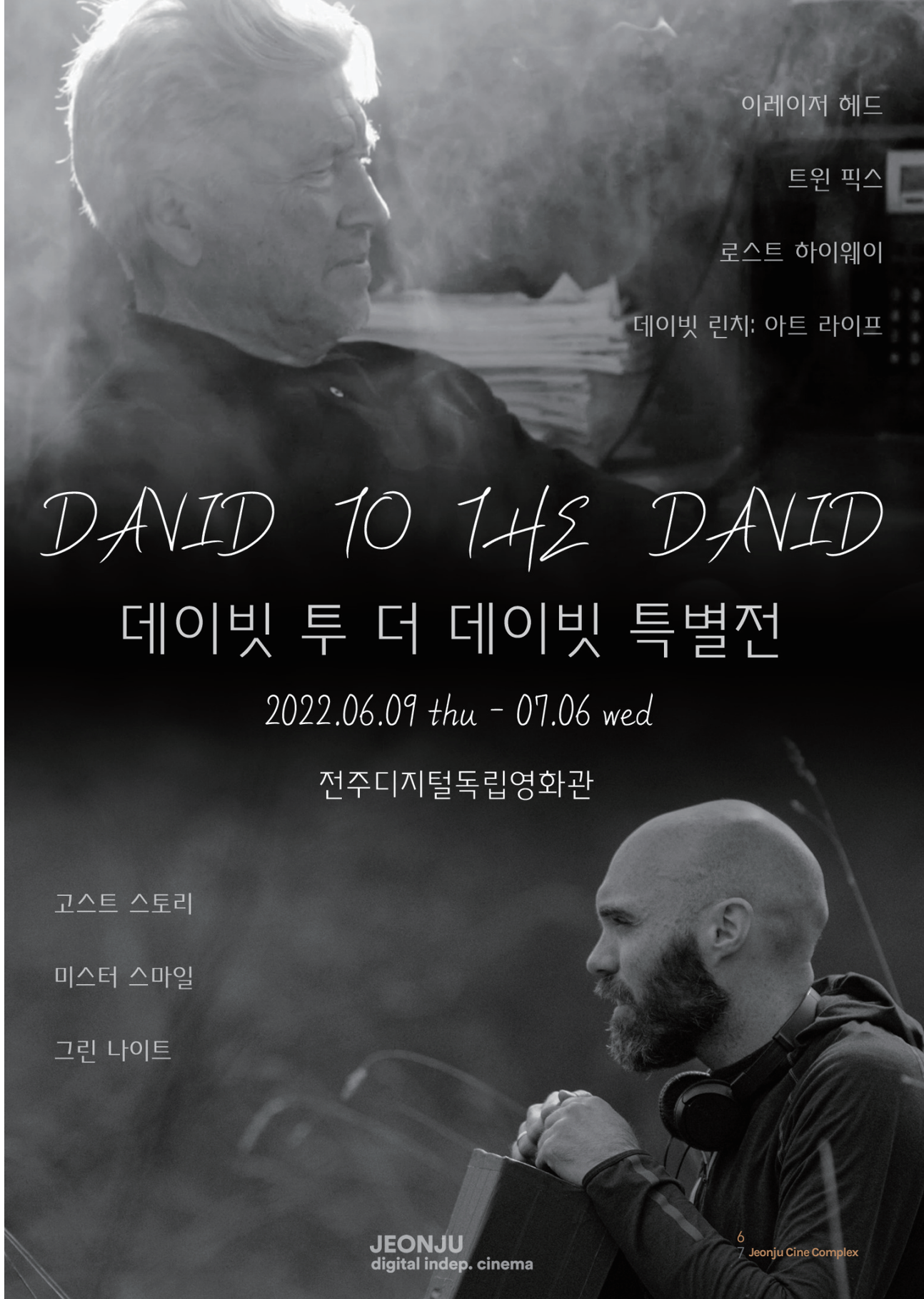
일시 I **6월 8일(수) 20시**

■ 후원회원 본인만 입장 가능 / 일반관객은 후원회원 가입 후에 입장가능
■ 후원회원 가입 안내
- 매표소 현장에 비치된 가입서 작성후 현금(또는 계좌이체)로 회비납부
- 가입회비 : 평생회원 50,000원/1년 단기회원 20,000원

상영작 온라인 예매 네이버 연동 안내



네이버 검색창에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을 검색하시면
상영시간표 확인 및 예매전용사이트 이동이
가능합니다.



상영작 정보 데이빗 투 더 데이빗 특별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는 다가오는 6월을 맞아 '데이빗 투더 데이빗(DAVID TO THE DAVID)' 특별전을 진행합니다.
흔하기에 익숙하게 넘어가거나, 지나쳤을 이름 '데이빗'으로 불리는 영화인 가운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두 명의 감독 데이빗 린치와 데이빗 로워리를 집중 조명합니다.
관객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영시간표 추후 안내
일반 7,000원
후원회원 / 단체(10인 이상) 6,000원
경로/어린이/청소년/국가유공자/장애인 5,000원

이레이저 헤드 Eraserhead, 1977 6/9(목)~6/22(수) 중 3회 상영

감독 : 데이빗 린치 | 출연 : 잭 낸스, 샬로트 스테워트 | 90분 | 판타지, 드라마, 공포 | 청소년 관람불가

젊은 헨리 스펜서(잭 낸스)는 산업화된 도시의 황폐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의 여자 친구 메리 X(샤롯 스튜어트)는 임신한 상태이다. 그는 아파트를 나와 여자 친구와 그녀의 부모를 만나러 간다. 그녀의 아버지는 화학 식품에 집착하는 병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이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성적 매력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하는 사람이다. 할머니는 부엌에 앉아있는데 아마 죽은 것으로 보인다. 메리는 헨리와 함께 들어와 그들의 아기를 돌보는데, 그 아기는 형태가 완전하지 않고 티슈 덩어리나 껍질을 벗긴 양 같이 보인다. 메리는 아파트 밖으로 나가고 헨리만 아기와 함께 남는다. 우연한 비극적인 사건 이후, 헨리는 영화가 시작될 때부터 그의 현실 세계의 경계선에 존재하고 있던 악몽 속으로 던져진다.

트윈 픽스 Twin Peaks: Fire Walk With Me, 1992 6/9(목)~6/22(수) 중 3회 상영

감독 : 데이빗 린치 | 출연 : 쉐릴 리, 레이 와이즈 | 135분 | 드라마, 미스터리 | 청소년 관람불가

그녀가 죽어서 고발하는 잔혹한 진실!! 결코 TV로는 볼 수 없었던 그 마지막 일주일!!
잣나무를 흔드는 바람소리가 올빼미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계곡 속의 작고 조용한 마을 트윈 픽스. 어느날 테레사 뱅크스라는 금발의 소녀 시체가 강 위로 떠내려 오는 것이 발견된다. 이 사건의 수사를 위해 FBI 특별수사관 데스몬드와 샘이 파견되는데 수사는 미궁으로 빠져들어 좀처럼 범인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날 2년전 어느 소녀의 살인사건을 수사하다 실종된 전 FBI 수사요원 필립이 FBI 본부에 불쑥 나타나 사건의 불길한 징조를 암시해주고 유령처럼 사라진다. 이와 때를 같이해 트윈픽스 마을에서 살인 사건의 의문을 풀어 나가던 수사관 데스몬드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FBI 본부에 날아드는데.....

로스트 하이웨이 Lost Highway, 1997 6/9(목)~6/22(수) 중 3회 상영

감독 : 데이빗 린치 | 출연 : 빌 풀만, 패트리샤 아퀘트, 발타자 게티 | 135분 | 미스터리, 드라마, 스릴러, 공포 | 청소년 관람불가

아름다운 아내와 살고 있는 성공한 뮤지션. 그러나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일종의 침체상태다. 너무나 일상적인, 간단한 몇마디만을 주고 받을 뿐인 한 남자와 한 여자. 낯선 이방인의 돌연한 출연이 있기 전까지 그들의 삶엔 변화가 없다. 현관 층계에 놓인 한 장의 봉투, 그 안에 들어있는 의문의 비디오 테잎.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 찍혀진 집안 내부. 밤이면 남자는 클럽에서 색소폰을 분다. 그리고 집에 오면 아내와 아무런 느낌도 없이 사랑을 나눈다. 그는 심한 두통에 시달린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불분명한 세계를 그린 <멀홀랜드 드라이브>, <인랜드 엠파이어>로 이어지는 데이비드 린치의 초현실적 스릴러.

데이빗 린치: 아트 라이프 David Lynch: The Art Life, 2016 6/17(금), 6/19(일) 각 1회씩 상영

감독 : 존 구엔, 릭 반즈, 올리비아 니르고르-홀름 | 출연 : 데이빗 린치 | 88분 | 다큐멘터리 | 15세 관람가

역사상 가장 유니크한 감독 '데이빗 린치'!
그가 들려주는 낯설지만 우아한 고백!
할리우드 자신의 스튜디오 빈티지 마이크 앞에 선 '컬트의 제왕' 데이빗 린치.
어린 딸 '룰라'에게 들려주는 가장 비밀스러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아이다 호의 작은 마을에서 순수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소년이
필라델피아의 예술 학교에 진학 후 기괴하고 미스터리 한 감독이 되기까지….
데이빗 린치가 직접 들려주는 그의 작품세계와 진정한 아트 라이프

고스트 스토리 A Ghost Story, 2017 6/23(목)~7/6(수) 중 3회 상영

감독 : 데이빗 로워리 | 출연 : 케이시 애플렉, 루니 마라 | 92분 | 판타지, 멜로/로맨스 | 12세 관람가

사랑을 잃다
교외의 작고 낡은 집 -
작곡가인 C와 그의 연인 M은 조용하지만 단란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어느 날, 갑작스런 사고로 C는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M은 무거운 슬픔에 잠긴다
사랑을 기억하다
창백한 조명의 병원 영안실 -
고스트가 되어 깨어난 C는 마치 홀린 듯 M이 기다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머무는 그녀와 고스트는 사랑했던 기억을 추억하며 무디게 흘러가는 시간을 견뎌낸다
사랑을 잊다
몇 년이 지나, 다시 집 -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헤어지며 상실의 시간을 지나온 M은 결국 집을 떠난다
남겨진 고스트는 영원히 그녀를 기다릴 자신의 운명을 알기에 끝을 알 수 없는 긴 여정을 시작한다

미스터 스마일 The Old Man and the Gun, 2018 6/23(목)~7/6(수) 중 3회 상영

감독 : 데이빗 로워리 | 출연 : 로버트 레드포드, 케이시 애플렉, 씨씨 스페이식 | 93분 | 드라마, 멜로/로맨스 | 15세 관람가

"전 지금 은행을 털러 왔어요, 제 가방에 현금을 채워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정한 슈트로 풀착장, 얼굴엔 미소를 잃지 않고 우아하고 품위있게!
사람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방식으로 한 평생 은행을 털어 온
전대미문의 은행털이 신사 '포레스트 터커'.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자유분방한 '쥬얼'에게 마음을 빼앗긴 포레스트는
자신의 정체에 대한 비밀을 간직한 채 '쥬얼'과의 만남을 이어간다.
한편, 텍사스주 경찰 '존 헌트'는 웃으면서 은행을 털어갔다는
미스터리 신사 '포레스트 터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점점 수사망을 좁혀가는데…

그린 나이트 The Green Knight, 2021 6/23(목)~7/6(수) 중 3회 상영

감독 : 데이빗 로워리 | 출연 : 데브 파텔, 알린시아 비칸데르, 조엘 에저튼, 사리타 초우드리, 랄프 이네슨, 케이트 딕키, 배리 케오간, 숀 해리스 | 130분 | 모험, 드라마, 판타지 | 15세 관람가

"녹색 기사의 목을 잘라 명예를 지켜라"
크리스마스 이브,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 앞에 나타난 녹색 기사,
"가장 용맹한 자, 나의 목을 내리치면 명예와 재물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단, 1년 후 녹색 예배당에 찾아와 똑같이 자신의 도끼날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아서왕의 조카 가웨인이 도전에 응하고
마침내 1년 후, 5가지 고난의 관문을 거치는 여정을 시작하는데…
전설이 될 새로운 모험, 너의 목에 명예를 걸어라!

씨네토크 1

"데이빗 린치의 작품 세계에 관하여"

해설 **김병규**
영화평론가

2022.06.15(수) 18:50
<트윈 픽스> 상영 후

씨네토크 2

"데이빗 로워리의 작품 세계에 관하여"

2022.06.29(수) 18:50
<그린 나이트> 상영 후

해설 **김소희**
영화평론가

{ 개봉영화 심층칼럼 }

세상이란 우물에서 우연을 길어올리는 방법

<우연과 상상>

우연과 상상
(偶然と想像, 2021)
감독 : 하마구치 류스케 | 출연 : 후루카와 코토네, 현리, 나카지마 아유무, 모리 카츠키, 시부카와 키요히코, 카이 쇼우마, 우라베 후사코, 카와이 아오바 | 121분 | 드라마, 멜로/로맨스 | 15세 관람가

김철홍
영화평론가

2021-22년은 하마구치 류스케의 한 해였다. <우연과 상상>은 베를린 영화제에서, <드라이브 마이 카>는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성과에 대해 눈에 보이는 인정을 받았다. 아카데미에서 국제장편영화상을 수상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한 사람처럼 흥분한 채로 수상 소감을 말했지만, 확실한건 그가 이뤄낸 모든 것들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하마구치 류스케가 카메라를 통해 포착하려는 것이 배우와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낸 무엇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가 그 우연을 정말로 우연히 획득하는 것은 아닐 테다.

하마구치 류스케의 영화가 전 세계 영화 팬들의 인정을 받은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그중 '예술로서의 영화'라는 관점에서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매력이 하나 있다면, 그건 하마구치의 영화에 하마구치가 지향하는 '영화

만들기 방법론'이 뼈대를 드러낸 채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마구치 류스케는 자신의 영화에서 자주 자신의 영화 연출론을 장면화 한다. 그 자체로 다섯 시간짜리 워크숍 같은 영화 <해피 아워>엔 무게 중심 잡기 워크숍이 있고, <드라이브 마이 카>에선 하마구치 류스케의 영화 현장과 같은 방법으로 대본 리딩 연습을 하는 극단이 있다.

세 개의 단편으로 구성된 <우연과 상상>은 보다 노골적으로 영화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다. 무엇보다 영화의 제목을 이루고 있는 두 단어 '우연'과 '상상'은, 누군가에겐 영화와 동의어로 느껴질 정도로 1차원적인 비유이다. 하지만 차원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우연과 상상>과 <드라이브 마이 카>를 비슷한 시기에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연과 상상>이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영화를 만들기 위한 예행연습 같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반대로 <드라이브 마이 카>를 <우연과 상상>을 만들었던 과정을 복습하는 영화로도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다 편한 마음으로 뭔가를 시도 혹은 시험해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하마구치 류스케의 연출론이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우연과 상상>은 하마구치 류스케가 어떻게 세상이란 우물에서 우연을 길어올리는지 그 방법을 목격할 수 있는 영화이다.

가장 언급하고 싶은 방법은 3부 <다시 한 번>에 있다. '코로나'만큼 이상한 이름을 가진 통신 바이러스가 지구를 휩쓴 세상. 나츠코(우라베 후사코)와 아야(카와이 아오바)는 우연히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내리던 중 실수로 서로를 아는 척하게 된다. 자신이 '아는 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은 것은 아야다. 아야는 나츠코에게 자신이 네가 찾던 '미카'가 아니라 아야라는 것을 밝힌 뒤 미안해한다. 낙담한 나츠코에게 아야는 자신이 '미카인 척'을 할 테니, 그동안 마음에 담아둔 말들을 하라고 한다. 그렇게 잠깐의 연기를 마친 둘은 다시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우연이 시작된 장소, 에스컬레이터로 향한다.

그 길에서 둘은 비로소 척이 아닌 진짜 대화를 나눈다. 아야의 아들-딸 이야기, 남편 이야기 등을 듣던 나츠코가 자신과 착

각한 아이에 대해 묻는다. 아야는 그 아이가 피아노를 즐기는 아이었으며, 함께 피아노를 치며 점심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이 특별했다는 말을 한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나츠코가 갑자기 아까 했던 것을 "다시 한 번"하자는 제안을 하고, 그렇게 둘의 연기가 시작된다. 이를 발견한 하마구치가 카메라를 줌인하자, 영화는 '그 아이인 척'하는 나츠코와, 나츠코가 '그 아이인 척'하는 것을 '모르는 척'하는 아야의 영화 속 영화로 변모하고, 그렇게 둘은 미리 협의된 것을 넘어선 마법 같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

사전 대화를 통해 인물의 디테일을 파악한 뒤, 이를 영화에 녹여내 새로운 상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은 그 누구도 아닌 하마구치 류스케의 그것이고, 그가 늘 이 방법을 통해 영화를 만들어왔다는 것 또한 세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 마지막 장면이 예상치 못한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때 또 하나의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대체 이 영화 속 영화의 끝은 어떻게 끝나게 될지, 각자 가던 길을 멈추고 갑자기 뒤를 돌아 이 영화의 컷을 외칠 사람이 아야일지 나츠코일지 그것도 아니면 하마구치 류스케일지 긴장의 끝을 놓지 못하는 순간, 아야

가 또 다시 한 번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오른다. 그대로 나츠코에게 뛰어간 아야는 나츠코를 붙잡고 그 아이의 이름을 외친다. 이때 아야가 떠올린 그 이름은 진짜일까, 상상일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야가 그 이름을 우연히 떠올린 것이, 정말로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CINEMA

MOVIE TIME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인터넷 예매 With d.tryx

✓ www.dtryx.com

✓ 회원가입 별도, 비회원으로도 예매 가능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

: 영화정보 페이지 '예매하기' 버튼에서 이동 가능

✓모바일 예매

: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디트릭스' 검색

전주영화제작소

카카오톡 채널 안내

플러스친구가 카카오톡 채널로 변경되었습니다

Ch 전주영화제작소 +

영화의 다양한 모습을 연주하기 위한 예술독립 영화와
영상문화기반 콘텐츠, 후반제작설이 한곳에!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❶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❷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❸ 홈에서 채널 추가

kakaotalk

1F 전주영화제작소

무료대관공모전시

Gaseum

Heart and Breasts

JEONJU
cine complex
무료대관공모전시

가슴

이은빈 개인전 / 2022.6.1(수)~6.19(일) / 전주영화제작소 기획전시실 1층

전주영화제작소

색보정실(D.I Room)

전주영화제작소는 영화영상 후반제작시설로 색보정실(D.I Room)을 중심으로
마스터링실(DCP Room), 편집실이 구축되어 있으며 다양한 촬영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작품이력

〈휴가〉 이란희 (제46회 서울독립영화제 장편대상 수상)
〈잔칫날〉 김록경 (제2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코리안 판타스틱:장편 작품상 수상)
〈학교 가는 길〉 김정인 (제46회 서울독립영화제 장편경쟁 수상)
〈노회찬 6411〉 민환기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 선정작)

색보정실 스펙

SGO Mistika 8K
4K DLP Projector & Screen Color Grading

JEONJU
cine complex

전주영화제작소 / 작업 및 시설·장비 문의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사구 고사동 전주객사3길 22 전주영화제작소 3층
전화번호 : 063 282 1400 E-Mail : cineplex@jeonjufest.kr 홈페이지 : www.jeonjucinecomplex.kr

6월 개봉작 일정

※ 하단 작품 외에 추가 개봉되는 작품은 추후에 홈페이지 및 영화관 현장에서 안내될 예정
※ 상영 시간표 업데이트 주기 변경 : 화요일에 해당주 목~차주 수요일 시간표 공개

5월 26일(목)

그대가 조국

6월 2일(목)

애프터 양

더 노비스

6월 9일(목)

윤시내가 사라졌다

올리 마키의 가장 행복한 날

6월 16일(목)

베르네 부인의 장미정원

6월 예정

경아의 딸

후원회원 시사회

윤시내가 사라졌다

6월 8일(수) 20시

▶ 상영시작 1시간 전 선착순 무료
(후원회원 본인 한정)

데이빗 투 더 데이빗 특별전

6월 9일(목)~7월 6일(수)

▶ 상영작 (총 7편)
- 데이빗 린치 감독 작품 6/9(목)~6/22(수) 중 3회 상영
<이레이저 헤드>, <트윈 픽스>, <로스트 하이웨이>

- 데이빗 린치 감독 관련 다큐 6/17(금), 6/19(일) 각 1회씩 상영
<데이빗 린치: 아트 라이프>

- 데이빗 로워리 감독 작품 6/23(목)~7/6(수) 중 3회 상영
<고스트 스토리>, <미스터 스마일>, <그린 나이트>

▶ 상영시간표 추후 안내
일반 7,000원
할인 6,000원
경로, 복지, 청소년 5,000원

※상영작 정보 8~9P 참조

관람객 매너 안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람환경을 만들기 위해 꼭!
지켜주세요.

- 정시상영
- 상영 10분전 입장
- 사진촬영 불가
- 음식물 반입 불가
- 휴대전화 전원 off
- 관람중 대화 삼가
- 엔딩크레딧 종료 후 점등
- 상영시작 후 발권 및 입장 제한

전주주차장
070.8960.9880(고사동 477-1)
영화 1편당 3시간 무료 (2편이상 관람 시 작품 수 만큼 도장 필요)
주차 추가요금 10분당 300원

※ 단, 전주 쇼케이스/대관행사는 주차 혜택 없음
※ 매표소에서 반드시 주차권에 도장을 받아야 혜택이 적용됨

JEONJU cine complex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 3길 22
전주영화제작소 063.282.1400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063.231.3377
http://jeonjucinecomplex.kr
※ 매주 월요일 / 명절 당일 휴관